

농업인단체 “전남 의과대학 설립 환영”

정임수 회장 비롯 30개 단체 성명 “노령인구 비중 높고 의료취약지 많아” “100명 정원 규모 성공 설립돼 도민 최상 의료서비스 누릴 수 있길 바라”

전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는 27일 정부와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환영했다.

(관련기사 7면)

정임수 회장을 비롯한 30개 농업인단체 회장들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성명을 내고 “그동안 전남은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농어촌 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가 많음에도 의과대학이 없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남권에 100명 정원 규모의 의과대학이 성공적으로 설립돼 도민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정임수)는 27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확정과 관련 전남도청에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는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등 직능·품목별로 각 분야를 대표한

30개 농업인단체 7만7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

에서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와 함께 특수전문분야 및 의과 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료 인력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양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사실상 의과대학 설립이 확정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과대학이 전남권에 설립 확정될 수 있도록 응원해 준 농업인단체에 감사한다”며 “100명 이상 정원의 의과대학을 유치해 농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건강권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비대면 온라인 어린이독서프로그램 운영

광주 동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여름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독서문화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 대해 비대면 독서지도를 통해 책과의 친밀감을 형성해주기 위한 것으로 실시간 양방향소통이 가능한 화상채널 'ZOOM(줌)'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서구, 민방위교육 “스마트교육”으로 대체

광주 서구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올해 민방위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

그동안 1~4년차 민방위교육은 연 4시간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온라인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1시간 받아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스마트민방위교육은 서구에 주소를 둔 모든 민방위대원에 해당되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1시간만 받으면 된다.

교육은 오는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서구청 홈페이지 배너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cc.kr)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남구, 관내 개방화장실 114곳 관리실태 점검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관내 개방화장실에 대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상가 점포에 설치된 개방화장실 46곳을 비롯해 주유소 및 충전소에 있는 화장실 37곳, 의료·복지시설과 교회, 문화시설 등에 설치된 화장실 31곳 등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개방형 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변기와 세면기 청결 상태, 편의용품 및 위생용품 비치 여부 등이다.

북구,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광주 북구는 “오는 29일 (예비)사회적기업 8곳과 ‘2020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광주시의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까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총 8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광산구 전통시장 상인들, 릴레이 나눔 나서

광주 광산구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실는 나눔에 나섰다.

24일 송정매일시장상인회(회장 박성순)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광산구보건소에 100만원 상당의 선봉기를 전달했다.

같은 날 1913송정역시장상인회(회장 범용)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부 감소가 우려되는 장애인복지시설 ‘보람의집’에 1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

이들 전인 22일 월곡시장상인회(회장 정미경)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광산구보건소로 50인분의 육개장과 말반찬 등을 보냈다.

임형택 기자

경사진 곳 주차 잘 못하면 범칙금 4만원 ‘실효성 의문’

광주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경사진 곳 주차 예방 조치해야 구체적인 경사도 규정도 없어

광주시는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관계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

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시설 개선은 지난 2017년 4월 서울대공원 경사진 주차장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 함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도입했다.

2019년 3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 또는 주차 할 때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단속 기준인 구체적인 경사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최근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2도 이상 경사진 주차장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으며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설 개선을 적용하고 점차 민간주차장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최근 경사진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대상을 조



사한 결과 총 31곳을 발견하고 차치구별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고임목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국철도 전남본부, 휴가철 특별방역 체계 구축 ‘안심 기차여행’ 만든다

내달 10일까지 18일간 ‘하계 특별수송기간’ 설정



한국철도(코레일) 전남본부가 오는 8월 10일까지 18일간을 ‘하계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코로나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운행종료 후 열차 소독을 철저히 하고, 열차 내 냉방장치 성능 개선, 선로 과열 예방을 위한 자동살수장치 설치, 수해우려개소 보강 등 열차 운행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특별수송기간 중에는 기

동차량점검반을 운영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시설물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이용객이 많은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등 주요역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전장호 본부장은 “코로나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에 편하게 방문해, 안심하고 힐링과 추억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세무기장 · 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인건보조금 지급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늦게서 재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평균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분위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11배
2017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70배
2018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10배
2019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70배
2020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5.30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